

나들이 계절... 유통·호텔가 봄맞이 마케팅 '후끈'

야외활동·나들이객 기획 다양
롯데백 광주점 '립스틱 페어'
이마트 '새 봄맞이 골프대전'
유타호텔, 봄 미식 프로모션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2일까지 2층 화장품매장에서 '스프링 립스틱 페어'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낮 기온이 훌쩍 오르며 본격적인 봄맞이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 유통가와 호텔업계도 계절 특수를 겨냥한 다양한 기획전과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해제로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 매출이 경종 났던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2일까지 2층 화장품매장에서 '스프링 립스틱 페어' 행사를 진행한다.

실제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후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이 다가오면서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색조 화장품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달 광주점의 색조제품의 매출은 전년 대비 15% 이상 늘어났다.

맥, 바비브라운, 입생로랑, 나스, 베네피트 등 대표 색조화장품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 10만원이상 구매 시 5%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은행사와 브랜드별 스페셜 기프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맥과 바비브라운에서는 선착순으로 무료 뷰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뷰티서비스는 롯데백화점 어플에서 쿠폰을 다운로드 받은 후 예약이 가능하다.

이마트는 본격적인 골프 성수기인 봄 라운딩철을 앞두고 올해 첫 골프대전을 진행한다.

오는 12일까지 '봄맞이 골프대전' 행사를 열고 이마트 단독 할인 상품부터 각종 신상품 클럽들을 행사가에 선보인다.

이마트 광주점, 봉선점 등 골프샵이 입점된 전국 49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골프클럽과 골프용품들을 행사카드로 50/100/150/200만원 전액 결제 시, 금액대별로 5/10/15/20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특히 이마트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젊은 2030 골프 입문자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호황을 맞은 골프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마트에서 2030 젊은층의 골프용품 매출은 지난 2021년 대비 19.2% 신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골프용품 매출이 약 5% 신장한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신장률이다.

전체 골프용품 구매 고객 중 2030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030세대의 골프용품 매출 비중은 전체 골프 매출 중 약 14.2% 수준이었으나 2021년 15.5%, 2022년 17.2%로 확대됐다.

이처럼 젊은 골프 고객들이 증가하자 이마트는 시타실을 갖추고 전문 판매원이 상주하는 골프 전문샵을 확대하고 이마트

앱 골프 클럽 혜택을 강화하는 등 골프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다.

호텔업계도 봄을 맞아 시즌 신메뉴와 봄 미식 프로모션을 출시하는 등 새 단장에 나섰다.

유타호텔은 여수 엑스포 유타마리나호텔&리조트에서 흥풍의 밤을 담은 감성주점 여수야시장의 다양한 퓨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여수야 패키지를 선보이고 광주 상무 유타부티크호텔&레지던스에서는 이달부터 식음료 매장 메뉴를 전면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먼저 여수야 패키지는 조식과 여수야시장 이용권, 레이트 체크아웃으로 구성돼

있어 합리적인 가격에 미식 호캉스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봄철 입맛을 깨울 여수야시장 대표 메뉴인 여수돌문어짬뽕과 돌문어짜장면, 얼큰문어전골탕 등을 맛볼 수 있다.

광주 상무 유타부티크호텔&레지던스의 플로라 씨푸드 디너 뷔페에서는 각종 제철 해산물 요리와 함께 봄 대게, 돈마호크, 왕새우, 양갈비 메뉴를 추가해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호텔 내 일식당인 정통일식 비금도 봄철 건강식을 출시, 잔코나베와 생선회, 랍스터, 와인으로 구성된 코스 요리를 봄 시즌 시그니처 메뉴로 판매한다. 단체 예약 시에는 할인과 와인 증정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유타유티레스호텔 제주는 오는 13일부터 봄 제철 식재료와 봄나물 등으로 구성된 웰빙 보리밥 뷔페를 점심시간 한정으로 선보이고 투숙객은 물론, 함덕 인근 여행객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픈 기념 10%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호텔에서는 봄 한정 메뉴로 겨멍 요리를 선보인다. 제주 방언으로 '검다'를 뜻하는 겨멍 메뉴는 웰빙 오징어 먹물로 색감을 낸 피자, 파스타, 리조토, 치킨 등으로 구성되며 겨멍 메뉴 출시 기념 파스타와 리조토는 2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오는 10일에는 3개 호텔과 리조트 객실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봄철 고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명태·고등어·오징어 최대 50% 할인한다

해수부, 대한민국 수산대전
15일까지 온·오프라인 행사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0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 3월 봄 맞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대

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로, 3월 할인 품목은 최근 소비자가격이 상승한 명태, 고등어, 오징어 3개 품목이며 해당 품목의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도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해 고수온 등에 따른 어획량 부진으로 대중성 어종인 건멸치와 살

오징어 가격이 1년 전보다 3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건멸치 중품 1kg의 도매가격은 2만1000원으로, 1년 전인 1만5860원보다 약 32% 올랐으며 살오징어 생선 중품 1kg 도매가격은 1만4500원으로 1년 전인 1만1240원보다

약 29% 올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1인당 1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11개 오프라인 업체와 우체국 소핑, 쿠팡, 수협소핑 등 19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며 온라인은 이달부터 오는 12일까지, 오프라인은 오

는 9일부터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께서 할인행사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봄 맞이전에 이은 3월 추가 특별전을 별도로 진행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곽지혜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